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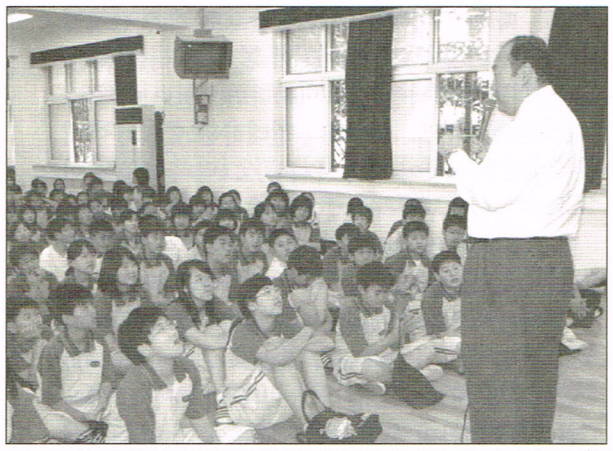
통권 제 132호_발행일 : 2005년 6월 19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5년 교회표어 :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_02-416-5181_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오늘은 교육부 주일,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지난 5개월 교육부 결산 "short-term celebration" 가져



우리 교회는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본부와 여러 청소년 관련 사역들이 시작되었고 다음세대에 대한 비전과 관심이 어느 교회보다 더 높다.

올해 홍민기 목사를 교육목사로 새로 청빙하고 11명의 교육전도사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학교 사역을 시작했다. 청소년사역의 전문화와 모든 교사의 전문적인 사역을 준비하고 모든 교육부서가 새롭게 활기를 띄고 있다. 특별히 교육부서의 학부모와 교사의 기도모임인 PTP가 3월부터 시작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고, 토요일 저녁마다 청소년찬양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이 두 집회는 이미 우리교회 교우들만의 집회가 아니라 지역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열린 모임이 되었다.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그리고 AWANA, 유소년축구클럽에 이르는 12개부서가 모두 부흥하고 예배의 갱신이 일어나는 교육부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기대한다. 교육부 12개부서는 1월부터 5월까지의 사역을 통해 주일출석 250명 성장이라는 빠르고 대단한 부흥을 보이고 있다. (3면에서 계속)

세번째 30CUP 예배
오늘 오후 4시 대예배실로 변경

6월 정기당회

중랑 노인종합복지관 경영 및 총회파송1호 북한선교사 후원키로

지난 14일(화요일) 저녁7시, 6월 정기당회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무국에서는 대예배실 청소탕비실을 전도예배용 음향기기 및 악보보관 창고로 개조한 일과, 대예배실 무대 커튼 뒤 칸막이를 폭2m, 좌우 2m씩 철거하여 무대뒤 창고를 확장보수한 것을 보고하였다. 오클랜드 주님의교회의 김화수목사가 안식년을 맞이하여 우리교회에 요청하여 온 설교교역자 파송의뢰에 대해 결의하고 부교역자중에서 8월에 파송하기로 했다.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은 26일 창립기념주일 3부예배시간에, 양동훈,정규창 장로 퇴임식과 함께 하기로 했다. 성백술장로는 스리랑카 수해복구지역을 정희성목사와 다녀온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했다. 교육부에서는 19일 주일을 교육부주일로 지키며, 2,3부예배시간에 교회학교 학생들이 장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등 계획을 보고했고, 여름행사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였다. 해외선교위원회에서는 중국과 몽골로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있으며, 파송선교사들의 근황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행정장정에 관한 논의는 좀 더 연구 후 하기로 하였다.

그간 다른 교회에서 위탁경영하던 중랑 종합복지회관을 우리교회에서 맡아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결의하였으며, 지원금 3,000만원은 한 교우가 익명으로 기탁하여 주었음을 밝혔다.

총회 북한파송 1호선교사인 김주윤 목사 지원요청에 대하여 주파송교회로 후원하기로 결의하고 9시30분경 당회를 마쳤다.

세례식

눈물의 신앙고백 있어

지난주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는 이번에 세례를 받는 성도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오건희 성도를 비롯한 16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다. 비록 인원은 다른 세례식에 비해 다소 적었지만 감증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진심어린 신앙고백과 먼저 세상을 떠난 딸과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로 간증하는 간증자들의 고백을 통해 함께 세례식에 증인으로 참석한 많은 성도들이 숙연한 가운데서도 다른 어느 세례식 때보다 더욱더 성령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로운 세례식이 이루어졌다.

다음 주일,
창립 17주년 기념 주일로 지켜

다음 주일은 우리교회 창립 17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된다. 특별히 3부 예배 때는 정규창 장로와 양동훈 장로가 시무장로의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게 되며, 또한 작년에 피택되어 교육을 받고 새롭게 안수집사와 권사로 임직하게 되는 임직식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직식에 관한 리허설은 2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모든 당회원과 임직 예정자들이 함께 모여 실시할 예정이다.

'오늘' 4부 예배,
장애 교우 부부 간증 있어

지난 주일 전도예배의 주제는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요?' 였다. 특별히 팔복 영상 중 '온유한 자' 편을 함께 보면서 잔잔한 영상 속에서 전달되는 팔복의 메시지를 묵상하였고, 영상 후에는 '오늘' 연주팀의 밝고 경쾌한 부위기의 CCM 찬양이 있었다. 그후에 문동학 담임목사의 설교 메시지가 있었다. (4면에서 계속)

담임목사 특별 기고

전도예배의 성서적 조명과 그 영성

최근 예배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전도예배(worship evangelism)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것은 '개념' (Concept)과 '양식' (Style) 중 어떤 것이 더 결정적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전도예배에 대한 논의가 '겉모습' 또는 '형식', 즉 '스타일' 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그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성(意圖性, Intention)과, 그 의도를 전달할 때 전제되어 있는 문화적 조건들(Cultural conditions)이다. 의도성을 조건지우는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스타일은 수 없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의도가 같더라도 문화가 다를 때, 스타일은 달라진다. 스타일이 같더라도 문화가 다를 때에는 그 의도성이 달리 전달되고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예배에 대한 논의가 그 스타일에 대한 논쟁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즉, 전도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과 같은 스타일을 만들어 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이러한 논의를 해야 하는가? 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한계 내에서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할 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전도예배는 소위 '열린예배' 로 많이 불려져 왔는데, 이 '열린예배' 는 최근 한국교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의 '구도자 예배' (Seekers Service) 또는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 에 대한 '한국적 번역용어' 이다. 그것도 최근 몇 년간 연쇄적으로 사용되고 적용되고 있는 일련의 사회적 변화 - 열린 음악회, 열린 교육, 열린 사회 등 - 와 병행되는 용어이다. 우리의 논의를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려고 하는' 경향성과 움직임과 연결시킨다면, 한국 사회에 대한 토론으로부터 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즉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열린예배' 에 대한 논의는 사회학적인 필연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20세기 한국사회의 현실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논의는 보다 본질적으로, 보다 신학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 **오늘의 '열린 예배' 는 그 스타일에 있어서는 새로울지 몰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열린예배는 '상황화' 또는 '문맥화' 로 번역될 수 있는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 (Contextualization)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복잡한 이 말을 쉽게 풀이한다면 '말귀를 잘 알아듣도록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 이다.**

이것을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보자.

첫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 의 결과이다.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선조들이 기록하고 전승되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전제하고 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의 문화적 전제들(Cultural presuppositions)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 (Concept)은 '히브리어' 또는 '히브리 민족' 이라는 한 '컨텍스트' 를 전제하여, 오늘의 기록된 말씀을 낳게 되었다. 이것을 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렇다.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채널이 사용되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포되고 기록되고 전승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 선포할 때, 청중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모든 문화적 방법들을 사용했다. 물론, 이사야의 의도가 반드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즉 이사야가 의도했던 대로 청중이 모든 것을 다 이해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사야의 의도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한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이사야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익숙해 있는 문화적 요인들 - 언어, 개념, 사연, 표현방법, 수사학, 관습, 비유 등 - 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사야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개념' (Concept)이 호세아의 입에 담겨졌을 때에는, 호세아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옷이 입혀진 상태로 선포되었다. 호세아는 자기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와 상황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모든 성서 기자들이 이러한 의도성을 갖고 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 의 한 결과인 것이다.

모든 언어현상은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의 과정이다. 모든 문학, 역사, 영화, 코미디와 유우머 등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이 아닌 것이 없다. 만약에 이러한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이 없거나 약할 때, 흔히들 '시대에 뒤떨어진' 또는 '표현력이 부족한' 또는 '말솜씨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말을 해도 능력이 없고, 말이 많아도 변화가 없는 것은 바로 이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의 결핍 또는 부족 때문이다. 문화와 역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과정은 성서 안에 있는 내적인 역사(internal history)를 통하여 반복되어 일어났다. 어떠한 개념이 시대가 바뀌고 문화적 배경이 변화됨에 따라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의 과정을 거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구원' 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변화됨에 따라, 즉 광야시대, 사사 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 이후시대, 중간사 시대, 신약시대에 따라 다른 옷을 입고 설명되어 왔다. 또 다른 예는, '제사' 도 이러한 역사적 시대를 거치는 동안 계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의 과정을 거쳤다. 성경 안에서도 제사의 형태와 스타일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레위기의 성전-희생 제사(Temple-Sacrifice)가 중간사를 거쳐 신약시대의 회당-율법 낭독(Synagogue-Law)으로 변화되고, 중세시대의 성례전 중심의 예배(Sacrament-Service)로, 그리고 종교개혁의 말씀 선포 중심의 예배(Preaching-Worship)로 변화되어 현재의 예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 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과정은 지극히 단순한 단면에 불과할 뿐, 예배의 내용과 형식은 각 민족, 각 문화, 각 교단마다 다르게 변화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고 또 계속 반복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사-예배의 변화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열린 예배' 라고 부르는 바, 그 스타일이 현대화된 오늘의 예배는 새로운 현상이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 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즉 살아있는 예배를 위한 예배신학적 결단이 된다.

셋째, '성육신' (Incarnation)은 계시와 역사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사람되심' 은 기독론과 구원론의 처음이요 끝이다. 말씀이 육신된 것은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육신이 되지 아니한 말씀은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한다. 육신 없는 그리스도는 영지주의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성육신은 요한복음에만 국한되는 진리가 아니고,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진리이다. 성육신은 구원의 내용이며, 동시에 구원의 방법이다.

> **'하나님의 사람되심' 의 모든 것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본질적 진리인데, 이 진리가 전달될 때도 역시 '성육신적인 방법' 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전도예배' 의 영성이다. 전도예배의 영성은 '인카네이션' 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원리 중 하나는, 어떤 메시지이든지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받는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하는 사람이 전하기 쉬운 방법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인카네이션이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함께 메지시를 주고받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문화이다. 한 쪽 문화에서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다른 문화에서도 똑같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전도예배도 그렇다. 미국 문화에서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스타일이 한국에 그대로 복사될 때, 전달되는 메시지는 왜곡될 수도 있고 오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복음의 메시지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려면 미국에서는 미국 문화에서 가장 적합한 스타일을 찾아야 하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적합한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토론이 '열린 예배를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열린 예배가 옳은가, 그른가?' 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우리 문화에서 가장 적합한 전도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에 맞추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것은 거룩함의 극치이다. 절대자가 상대자가 되고, 무한자가 유한자가 되고, 거룩하신 분이 속된 몸과 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이며, 거룩하심의 절정이다. 더 쉽게 말하면, 어른이 아이가 되고, 부모가 아이의 말과 몸짓을 하는 것이, 아이에 대한 어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의 언어와 몸짓을 사용하고, 영적인 어른이 영적인 아이에게 아이가 기뻐할 언어와 몸짓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을 몸소 실천하려는 영성이다. 영성의 극치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인카네이션으로 극적으로 표현된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성도들만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배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되어 온 만큼, 예배에서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과 인카네이션을 실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필연적이다.

넷째, 이런 측면에서 바울의 성육신적인 전도방법을 주목하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19-23)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유했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사람의 관심에 공감하며 섬기는 그의 모습은 '가능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 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의 옷을 입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옷과 언어를 사용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를 인정하면서 존중했다. 예를 든다면, 바울은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아니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율법 없는 자, 즉 헬라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는 돼지고기를 먹었다. 그 이유도 가능한 많은 헬라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바울이 헬라인들과 함께 돼지고기를 먹는 사실 때문에 실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과 믿음을 같이 나누었다. 이것이 바울의 성육신적인 전도방법의 본질적인 철학이며 신학이었다.

여러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 모양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단 몇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며, 복음에 참예하는 길이다. 이것은 인카네이션적인(Incarnational) 결단이다. 성육신은 복음이며 복음은 성육신이다. 성육신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에게 성육신은 고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옷을 몸소 입으셨다. 이것은 절대적인 고통이다. 만약 우리도 현대문화를 사용하되, 사용하는 사람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옳지 않은 접근이다. 문제의 초점이 달라진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문화가 무엇인가?" -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질문은 아니지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와 반대로, "복음을 전달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문화가 무엇인가?" -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다.

현재 한국 교회의 방향과 스타일을 결정하는 그룹은 어떠한 문화에 속해 있는가? 질문해 보자.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화에 속해 있는가? 를 생각해 보자. 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를 고집하지 말고 전함 받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전도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지라도, 이것이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면' 기쁘게 선택하는 것이 성육신적인 결단이다.

중보기도사역팀 월례회

중보기도 제목 비밀 지키기로 다짐해

중보기도 사역팀은 6월 월례회로 영아부실에서 16일 목요일 1시에 함께 모였다. 간단히 김밥으로 점심을 대신하며 '선하신 목자'를 부르며 월례회를 시작했다. 담당 교역자인 정영환 목사의 기도로 우리는 목마른 영혼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을 고백하며 다함께 통성기도를 하였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을 베푸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정영환 목사는 격려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했다. 중보기도 사역팀은 베드로의 다짐처럼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시간씩 최선을 다해 기도로 헌신하자고 당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스스로를 속이지말자고 말했다. 중보기도 사역으로 내가 한 시간씩 기도하는 것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생각하지말고 때가 이르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지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순종도 잘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때 항변했듯이, 중보기도 사역자들도 평소에는 잘하다가 중보기도 제목이나 사연을 다른 사람에게 무심코 전달하게되면 사단의 미혹에 빠질수 있으며,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 있기에 조심하자면서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며 돌아보는 사역자가 되자고 말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질때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듯이, 사역팀들의 만남인 소그룹 안에서 소중한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힘을 더해주자고 당부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귀를 열고 소그룹 안에서 영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떤 사단의 세력도 사역팀을 범치 못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정영환 목사의 격려의 메시지 이후 함께 다시 통성기도를 드렸다. 교회안에 있는 여러가지 행사들을 놓고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했다. 곧 다가올 교회학교와 교구별 수련회를 위해 기도했고, 19일 교육부 주일, 26일 창립기념주일, 장로퇴임식, 권사 및 안수집사 임직식등을 위해 기도했다.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 각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시대 하나님이 품으신 비전을 보게해 달라고, 이 나라의 기슴아픈 현실 특별히 무너진 교육계를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했다.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과 브리스길라 중보기도학교의 이집트 전도대회를 위해 기도했으며,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비전과 차세대 리더를 위해, 주님의교회 안에 성령님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와 기도에 힘쓰는 팀원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모든 중보기도를 마친뒤 '야곱의 축복' 을 부르며 중보기도 사역팀 6월 월례회를 마쳤다.

(1면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부 주일,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지난 5개월 교육부 결산 "short-term celebration" 가져

교육부에서는 가을부터 교사훈련원을 열게 되고 새롭게 정립되고 조직된 교사훈련원에서 신입교육, 재교육, 계속교육등의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을 훈련하게 된다. 오늘은 5개월간의 각급 교육부서의 사역을 온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기뻐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며, 전 교육부 사역의 방향과 현장을 함께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늘 1-3부 주일 설교는 홍민기 목사가 담당하게 되며, 2-3부 예배 때는 영상과 특별순서도 있을 예정이다. 또한 오늘 2-3부 예배는 모든 교육부서가 장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family worship이 될 것이다. 계속 교육부의 지속적인 부흥과 회복을 위해 그리고 다음세대를 책임지고 한국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린다.

청년부 뮤지컬 공연

춤과 노래로 마태복음 표현해

지난 주일 청년부 예배에서는 청년들이 준비한 뮤지컬 GODSPEL이 공연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마태복음 내용을 춤과 노래로 표현한 뮤지컬은 박상용, 최보미 성도가 연출 및 안무를 맡았다. 3월부터 약 3개월간 꾸준히 연습해오면서, 청년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 함께 울고 웃었다. 길고 어려운 대사를 외우느라 힘든 적도 많았지만 성경만으로 공부할 때와는 또 다른 직접 몸과 마음에 와닿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전한다. 처음으로 연기를 해보고, 안무를 배우고, 직접 의상을 제작하기도 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동기들 간에 끈끈한 우정을 쌓은 것이었다고 한다.

유아세례 계속 교육중

7월 13일(수)에 이루어질 유아세례를 위한 교육이 지난 주일 오후 1시 40분부터 3층 초등부실에서 세례사역팀을 담당하고 있는 정희성 목사 주관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다소 적은 인원이 지원하여 교육을 받고 있지만 소그룹의 분위기를 통해 유아세례에 관한 교육과 가정 사역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이 밀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성스런 세례사역팀의 봉사와 무엇보다 영아부 교사들의 늦은 시간까지 세례받을 아이들을 돌보는 헌신으로 은혜 가운데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다.

제2회 하프타임공개강좌

"건강장수의 지름길" 강연해

하프타임사역팀에서는 오늘 (19일) 오후1:30에 제3집회실에서 두 번째 공개강좌를 연다.
한의학박사인 김경빈장로는, 녹용류가 백서의 내분비기능에 미치는 영향, 사종의 녹용이 실험적빈혈가토의 적혈구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롯 11가지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계획인데, 건강상식에 대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기아대책기구

한톨자선달리기 참가해

지난 6월 6일에 있었던, 기아대책기구 주최 한톨자선달리기에 많은 주님의 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의 참여가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 세계 기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유엔아동기금이 발표한 연례보고서 '소시얼 모니터 2004' 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거주 어린이의 약 3분의 1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는 성장해도 어린이 권익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소시얼 모니터 2004'의 분석 대상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7개국이었다. 이 보고서에는 특히 폴란드, 러시아, 아르메니아 등 9개국 어린이 총 4,400만명 가운데 약 1,400만명을 '빈곤층' 으로 분류했다. 다른 18개국은 자료 부족으로 총체적인 비교분석이 어렵지만 더 많은 어린이들이 빈곤에 허덕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조사대상 국가 중 일부는 경제성장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권익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예컨대 우즈베키스탄은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초등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는 현재 7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어린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빈곤과 노동 착취에 허덕이고 있다. 유엔아동기금에 따르면 '착취 노동' 에 동원되고 있는 어린이(국제노동기구 기준 만 13세 미만)는 전 세계 약 2억 4,600만명에 달한다.
이 중 75%는 지뢰, 독극물 등을 다루는 위험한 환경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전쟁, 기아, 질병으로 고아가 된 어린이들도 수천만명 이상이고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만 1,340만명에 육박한다. 아시아 및 동유럽 극빈층 소녀들은 아직도 '우편배달 신부' 라는 이름으로 성 매매 대상이 되고 있다. 생계를 위해 성산업에 내몰린 소녀는 동남아시아에서만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을 비롯해 전 세계 30여개국에서는 이제 8세가 된 어린이까지 전쟁을 위한 병사로 동원되고 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불구가 된 어린이는 현재 600여만명, 10년간 전사한 소년병은 2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아프리카 수단의 내전으로 20만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기아와 영양실조에 직면해 있다. 과연 이러한 비참한 세계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1면에 이어서)

'오늘' 4부 예배, 장애 교우 부부 간증 있어

오늘 있을 4부 전도예배의 주제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지요?' 라는 신정론에 관한 다소 어려운 주제를 다루게 된다. 오늘 4부 예배 때는 임혜현, 김주옥 집사의 장애교우 부부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누고, 최승철 집사가 욥의 독백이라는 주제로 모노드라마를 하게 된다. 이후 문동학 담임목사의 메시지와 성경 안의 탄원 말씀 자막과 연주를 통해 우리 삶에 있는 갖가지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변함없는 친밀한 관계와 신뢰의 관계를 계속 믿음 안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 드린다. 또한 4부 전도예배팀 중에는 예배를 돕기위한 탁아부가 운영되고 있다. 탁아부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정성껏 그들을 돌보아 주고 있으니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4부 예배 탁아부에 믿고 맡기고 4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찾아가면 된다. 탁아부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중국 선교팀,

8월 단기선교 대상 모집해

중국선교팀은 올해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중국 하남성 남양, 예방세계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선교준비를 하게 된다. 남양은 윈(雲)형제의『하늘에 속한 사람』을 통하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 문화혁명 당시 중국 가정교회가 발원한 양대 줄기 중 한곳이다. 그곳에 윈형제와 뜻을 같이하며, '예루살렘으로(Back to Jerusalem)' 를 선교철학의 배경으로, 자비량 선교를 목적으로, 주로 가정교회 출신의 한족청년들을 선교사로 양육하고 있는 유선교사가 있다. 예방세계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 선교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관문이 될 회교권과 힌두권의 문을 열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선교사역의 꿈을 가지고 있다. 현재 약 40여명의 젊은 일꾼들이 선교센터 건립 토목공사, 자비량 선교를 위한 예술품 및 상품개발생산, 공장건립 노역 등을 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에 행해지게 될 단기선교의 내용은 예방선교센터 공동체를 말씀과 창의적인 행사로 돕는 일과, 예술 및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매우 낙후된 그곳 농촌주민을 위한 대민 봉사활동 등의 두 가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에 따라 함께 동참할 성도들과 더불어 세부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중국 단기 선교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

6월 26일 교회 창립 17주년

기념음악회 준비 한창 진행중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아 기념 음악회가 29일(수) 밤에 대예배실에서 개최된다. 2부 예배를 섬기는 시온찬양대 주관으로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공연하며,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Prime Philharmonic Orchestra)가 협연한다.
한편, 정상급 성악가로서 우리교회 성도인 이단열 집사, 한나숙 집사, 장철 집사가 함께 열창한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는 헨델의 '메시아' 와 함께 오라트리오 작품 중 최정상을 차지하는 하이든의 최대의 작품으로, 6일간에 걸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위업과 에덴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사랑,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대해 찬양하고 있다.
1798년 완성된 이 작품은 밀턴의 실낙원을 토대로 하며, 가사와 음악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독창, 중창, 합창의 조화와 관현악의 색채적 묘사가 뛰어나다. 전3부 34곡으로 제1, 2부는 세 천사를 중심으로 6일간에 걸친 신의 천지창조 과정을, 제3부는 낙원에서 아담과 이브의 사랑을 그렸다. 함께 협연하게 될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유수의 기량을 갖춘 연주자들로 구성하여, 교향악은 물론 오페라와 발레 등 극음악 반주전문 오케스트라로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교회창립 17주년 기념음악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우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